

타 전공 연구자의 서지학적 연구 동향

Bibliographical Research Trend of Researchers with Different Majors

韓美鏡 (Han, Mi-Kyung)*

◁ 목 차 ▷

1. 서론	4.3 게재 학술지
2. 선행연구	4.4 연구년도
3. 연구의 범위와 절차	4.5 문헌 소장처
3.1 연구의 범위	5. 종합 분석
3.2 조사의 절차	6. 결론
4. 연구 동향의 조사	<참고문헌>
4.1 저자의 배경	[부록]
4.2 논문수	

< 초 록 >

이 논문은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서지학적 연구 동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의 배경은 대학 또는 대학부속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와 연구원이다. 이들은 인문과학 분야 소속 연구자가 가장 많으며, 자연과학 분야의 한의학 연구자도 특징적이다. 둘째,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는 평균 3.28편의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국어국문, 역사, 중어중문, 미술 등의 전공자가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대체로 단독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전체논문 중 평균 4편 중 1편은 서지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107종의 다양한 주제 분야의 학술지에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그 중 『서지학연구』의 게재율이 가장 높았다. 넷째, 1990년 중반 이후 타 전공 연구자의 서지학적 연구 논문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원문 DB 구축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연구대상 문헌의 소장처로 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외에 박물관 등이 조사되었으며, 국가별로는 국내 외에 일본이 가장 많은 연구대상 문헌의 소장처임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 조사 결과 통합적 연구 경향이 다소 보이므로 연구 영역의 확대가 기대된다. 둘째, 인터넷 및 디지털 연구 환경 변화에 따른 원문 DB화 및 고전자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으로 다양한 문헌과 소장처의 발굴이 기대된다. 넷째, 타 전공 연구자의 서지학적 연구는 기초조사로서의 연구 방법만이 아닌 연구 분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 다섯째, 게재율이 가장 높게 조사된 『서지학연구』의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 제고 외에 서지학 분야의 통합형 및 융합형의 학문으로의 전개가 기대된다.

要語: 서지, 서지학, 문헌학, 연구동향,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bib4u@kgu.ac.kr)

접수일: 2017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17년 12월 8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21일
서지학연구, 제72집, 225-250, 2017. [https://doi.org/10.17258/jib.2017..72.225]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quantitative trend analysis of bibliographical researches with different majors. Firstly, the bibliographical researchers of different majors are the professors and researchers who belonged to universities and auxiliary facilities. The researchers who belonged to the human science fields dominate this group and it is to be noted that persons majoring in oriental medicine of natural science fields also conducted bibliographical researches. Secondly, the bibliographical researchers of different majors authored average 3.28 articles and they included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nd fine arts. Overall, most of them conducted researches for themselves. On average, one in four of the total articles were bibliographical researchers of different majors' bibliographical studies. Thirdly, bibliographical researchers of different majors' articles were published at 107 types of various subject areas of journals and among them, the publication rate of *research of bibliography* was the highest. Fourthly, the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bibliography has on the significant increase since mid-1990s, while being influenced by the change in internet environment and the construction of full-text DB. Fifthly, museums, as well as libraries and university libraries, were investigated as the possessors of the bibliographical documentations of research and it was found out that Japan is the largest possessor of documentation next to Korea.

Based on this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ly, the expansion of research fields is expected, based on integrated research trend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of bibliographical researchers of different majors. Secondly, data basing of the possessors' full text and more active information service on classical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research environment in internet or digital research are needed. Thirdly, the discovery of various documentations and possessors is expected as a result of studies by bibliographical researchers of different majors. Fourthly, it is expected that the bibliographical research of bibliographical researchers with different majors will be research field which is not confined to research methods as basic investigation. Fifthly, in addition to the improvement of position of 'bibliography research' which were found to record highest publication rate as professional academic journals, bibliography needs to be evolve into the integrated and fusion studies.

Key words: a bibliography, the bibliography, philology, research trend,
the bibliographical researchers of different majors

1. 서론

서지학은 문헌정보학 중 고전 자료에 대한 원문과 내용 및 형태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학문영역의 하나이다. 또한 국문학과 역사학 외에 서예와 미술 및 문화재보존학 등의 연구를 위한 기초 학문영역, 보조 학문영역 또는 연구방법의 하나이며, 이 경우 ‘문헌학’으로 불리 우기도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경우 고전 해제 항목을 보면 ‘정의’, ‘서지적 사항’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설명 및 기술하고 있다. 그중 서지적 사항은 현대 자료의 서지정보와 비슷하지만 주로 권책사항, 판본사항 및 원간연대와 국내외의 현전 판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전 자료의 서지적 사항은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전래되어 오면서 다양한 판본으로 간사되고 권책 사항 또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지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문헌의 서지학적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의 조사결과, 약 20%는 서지학 전공자가 아닌 타 전공 연구자에 의하여 연구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¹⁾ 즉 이러한 타 전공 연구자는 인문과학분야의 국어국문학 전공에서부터 자연과학의 한의학 또는 의사학 전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어졌다. 이들은 전문 분야 전공자로서 문헌학 또는 서지학을 하나의 영역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연구방법의 하나로 기초 작업으로 진행하므로 서지학 연구의 영역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관련 선행연구의 조사를 통하여 최근 들어 일부 주제 분야에서 문헌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초학문영역이자 연구방법의 하나로서 학제적 성격으로 연구되어지는 문헌학적 또는 서지학적 연구에 대한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연구 동향을 조사할 필요가 제기된다.²⁾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술논문 DB 서비스 플랫폼의 하나인 DBpia를 통하여 색인어 ‘서지’로 검색되어지는 논문을 조사하고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저자사항, 논문수, 게재 학술지, 연구년도, 문헌소장처 등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 연구는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연구동향에 대한 계량적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들의 서지학 분야에서의 역할 이해와 서지학적 연구 영역의 확장 등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서지학 분야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한 선행연구와 서지학 분야 외의 국문학, 역사학, 의학, 서예학, 미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지학적 연구 또는 문헌학적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 한미경, “『서지학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서지학연구』 65(2016), 119-148.

2) 이 연구에서는 서지학 또는 고문서관리학 등의 전공자를 ‘서지학 연구자’로 표기하고, 그 외 전공자로서 서지학적 또는 문헌학적 연구를 진행한 저자는 ‘타 전공 연구자’ 또는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서지학 분야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서지학 분야의 연구동향 선행연구

연구연도	연구범위	연구대상	고찰내용	비고
1992	한국	• 단행본 • 논문류 • 서지학연구	• 종합적 고찰	
1995	중국, 일본 및 서양	• 단행본 • 논문류	• 교감학, 목록학, 판본학, 도서관사, 고문서학, 고서관리, 독서록 등 분야	
1996	중국	• 단행본 • 논문류	• 세부 영역별	• 교육과 연구 동향 분석
1997	한국	• 서지학연구	• 세부 영역별	• 계량적 분석
2002	한국	• 서지학연구	• 세부 영역별	• 1997년 연구결과와의 비교
2016	한국	• 서지학연구	• 세부 영역별	• 1997년 연구결과와의 비교

이상과 같이 서지학 분야에 대한 연구는 서지학의 연구논문과 단행본 등 다각적인 연구동향 외에 서양과 한국과 중국으로 구분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거나 중국의 연구를 조사 분석하고 있다. 서지학 분야의 학술지인 『서지학연구』를 대상으로 1992년, 1999년, 2002년 및 2016년에 걸쳐 네 차례의 연구동향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는 각기 다른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1999년과 2002년 및 2016년의 연구는 서지학 연구의 변화를 연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서지학 분야 외의 국문학, 역사학, 의학, 서예학, 미술학, 불교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대상 문헌에 대하여 문헌학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다만, 연구동향의 조사와 분석은 많이 찾아지지 않으며, 일부 관련 연구를 포함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우선 문헌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는 선행연구로 1995년에는 국학 및 국문학의 문헌학적 기초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국내의 문헌학적 연구의 현황을 조사 및 기술하고 있다. 2003년에는 독일의 불교학분야의 주요 연구방법인 문헌학적 연구방법을 소개하며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2012년에는 문학연구 패러다임의 변화와 학문후속세대에 관한 소고를 기술하면서 문화연구적인 텍스트 읽기에 대별되는 문헌학적 텍스트 읽기라는 문헌학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동학의 철학적 연구를 위하여 텍스트 이면과 배면이라는 문헌학적 및 서지학적 성과를 고찰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헌학적 연구 동향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로 1985년에는 고전소설 작품 연구 방법론을 검토하면서 실증을 요하는 기초적 연구부분에서 문헌학적 연구의 주요성과물을 조사 분석하면서 문헌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2015년에는 고소설 연구에서 문헌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주요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고소설은 한 작품이 여러 이본(異本)을 지니고 있고 자료의 발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17년에는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학술대회에서 『불교 문헌에 대한 서지학적 접근』으로 “불교 고문헌 자료 서지 조사의 문제점”, “한국서지학회 『書誌學研究』에 게재된 불교문헌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서지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대장경 연구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불교문헌과 대장경 및 문학작품 등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의 동향과 문제 등을 다방면으로 조사 연구하여 서지학적 연구방법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 2> 타 전공 서지학 분야의 연구동향 선행연구

구분	연구연도	범위	분야	고찰내용	비고
문헌학적 연구의 필요성	1995	한국	국학, 국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학 문헌자료 종합목록작성, 문헌교감 • 국학자료의 전산화 작업 • 한문전적의 주석 및 국역사업 • 국문 고전적의 현대역 작업 	• 연구의 필요성과 현황
	2003	독일	불교학	• 원전 비판과 원전 해석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텍스트 연구의 역사주의적, 실증주의적 방법 • 문헌학적 연구의 필요성
	2012	러시아, 한국	문학	• 문헌학적 텍스트 읽기	• 문학연구의 문헌학적 연구
	2016	한국	동학	• 문헌학적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학적 · 서지학적 고찰의 함의 • 문헌학적 연구의 필요성
문헌학적 연구 동향	1985	한국	고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을 요하는 기초적 연구 • 소설 짜임새 연구 • 소설의 아름다움과 사상에 대한 연구 • 소설 작품과 사회·역사와의 관련 모색 연구 	• 문헌학적 연구의 중요성과 동향
	2015	한국	고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설의 목록 작업 • 고소설의 영인본(影印本) • 고소설 이본 연구를 통한 선본(善本) 확인 및 이에 기반을 둔 고소설의 향유 및 유통 • 고소설의 해제, 주석 및 현대역본 작업 등 	• 연구동향
	2017	한국	불교	• 불교문헌 연구의 방법	• 불교문헌의 서지학적 접근 분석

이상과 같이 서지학 분야 외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대상 문헌에 대한 분야별 연구와 서지학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 문헌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 위주이나 문헌학의 연구동향의 경우 국문학이나 고소설과 불교학 분야에서 주로 찾아지고 있다. 또한 주목한 만한 것은 최근 들어 일부 학문분야에서 기초연구영역으로 또는 연구방법의 하나로 서지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3. 연구의 범위와 절차

3.1 연구의 범위

3.1.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란 구체적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서지학 전공자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문서관리학 전공자를 제외한 연구자를 의미한다.

3.1.2 검색 DB와 검색어

일반적으로 서지학적 연구논문의 경우 키워드로 '서지', '문헌', '판본', '대본', '저본', '이본', '형태', '목록' 등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인 '서지'를 대표 검색어로 선별하였으며, 이는 논문제목과 키워드에서 색인화된 것이다. 즉, 학술논문 DB 서비스 플랫폼의 하나인 DBpia를 대상으로 '서지'로 검색되는 논문을 조사하였다.

3.1.3 연구 범위의 설정

첫째, 서지학적 연구가 아닌 것으로 역사적 관점류(예: 檜達山 法泉寺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검토), 문헌의 해제 또는 번역(현대어 번역), 인물의 생애 등에 대한 논문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단순한 용어의 설명으로 검색된 경우도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검색어 '서지'로 검색되는 논문들 중 '계량서지', '근대서지', '저자서지', '서지정보', '서지레코드' 등의 경우도 포함하지 않았다.

셋째, 일반적 고서의 범위를 기본으로 연구대상 문헌의 간행년을 1910년 이전으로 제한하고, 근대 서지 또는 근대 문헌에 대한 연구논문은 포함하지 않았다. 예로 청강 김영훈 진료기록물(淸崗金永勳 診療記錄物)은 한의사 김영훈이 1914년부터 1974년까지 한의원 보춘의원을 운영하면서 남긴 기록물이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넷째,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되, 2인 이상 공저의 경우 그중 1인이더라도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가 참여한 경우도 포함하였다.

다섯째, 연구논문만을 대상으로 선별하였으며, 그 외 『한국서지』와 같은 도서의 본문 중에 출연한 단어의 설명은 제외하였다.

여섯째, 공식적으로 출판된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술발표집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즉 연구발표에 대한 토론문 또는 시론, 기조연설문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일곱째, 게재 학술지의 경우 해외는 SCIE와 A&HCI 및 SCOPUS 등재와 국내의 한국연구재단의 KCI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외 일반논문집은 포함하지 않았다.

3.2 조사의 절차

3.2.1 조사 시기

2017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하였다.

3.2.2 조사대상 논문의 시간적 범위

DBpia에 구축되어 있는 각 학회지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작 시기부터 또는 각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학술지의 간기에 따라 2017년 5월호 또는 6월호와 일부 7월호까지 포함하였다.

3.2.3 조사대상 논문수

1차적으로 검색어 '서지'에 대한 DBpia의 검색결과 404면(1면 논문 20종) 총 8,063종 중 약 50%에 해당하는 204면의 4,040종 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즉 1차적으로 논문제목과 키워드에서 '서지'로 색인화된 논문을 검색하고, 2차적으로 검색된 저자 중 식별된 저자 정보로 제공된 저자의 논문을 2차적으로 검색하여 포함하였다. 공저자의 경우 2차적으로 재검색하여 포함하였다. 2차적 검색의 경우 DBpia에서 식별된 저자로 검색이 제공되는 경우 검색을 진행하였다.

3.2.4 조사 사항

저자의 배경, 논문수, 게재 학술지, 연구년도 및 문헌 소장처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는 총 764개 연구논문의 저자로 281명이 조사되었으며, 저자의 배경으로 지위와 전공을 조사하였다. 저자 지위의 경우 가장 최근의 지위로 논문상의 저자사항을 참고하였으며, 지위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검색으로 조사하였다. 전공의 조사 또한 가장 최근의

지위로 논문상의 저자사항을 참고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정보 중 박사학위논문을 기본으로 하였다. 일부 1990년 이전 논문의 저자로 조사가 어렵거나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검색이 비공개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게재 학술지는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지를 조사하였으며, 주제분야와 학술단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총 764개 연구논문의 학술지 총 107종을 조사하였다.

셋째, 연구년도는 연구논문의 학술지 게재년을 조사하였다. 총 764개 연구논문의 1971년부터 2017년 5월호 또는 6월호 및 일부 7월호 까지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넷째, 문헌 소장처는 연구대상 문헌의 소장처를 조사하였다, 총 764개 연구논문의 소장처 143곳을 조사하였다.

4. 연구 동향의 조사

타 전공 연구자의 서지학적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저자의 배경, 논문수, 게재 학술지, 연구년도, 문헌 소장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4.1 저자의 배경

저자는 일부 해외 저자를 포함하여 총 281명이 조사되었으며, 저자의 배경으로 신분과 소속기관, 전공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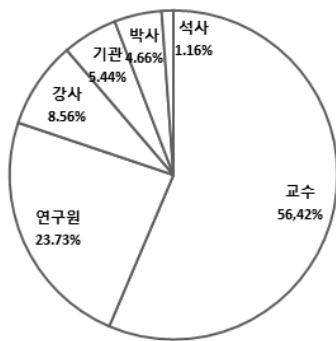
4.1.1 신분

가장 최근의 지위로 논문상의 저자사항을 참고하였으며, 지위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검색으로 조사하였다. 전공의 조사 또한 가장 최근의 지위로 논문상의 저자사항을 참고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정보 중 박사학위논문을 기본으로 하였다. 일부 1990년 이전 논문의 저자로 조사가 어렵거나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검색이 비공개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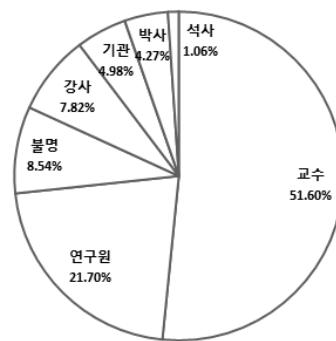
총 281명의 저자 중 지위가 정확하지 않아 조사되지 않은 24명을 제외한 257명의 저자의 지위는 교수, 강사, 연구원(또는 연구위원 등), 석사 또는 박사(또는 과정) 및 박물관이나 연구소 등의 기관 소속자로 조사되었다. 그중에 교수³⁾가 가장 많아 145명으로 56.42%였으며, 다음으로 연구원

3) 교수로 조사된 145명 중 연구교수 7명, HK교수 4명, 명예교수 4명, 외래교수 2명, 학술연구교수 2명, 초빙교수

이 61명으로 23.73%로 조사되었다(<그림 1> 참조). 다음으로 강사 22명(8.56%)과 기관소속자들 14명(5.44%)이며, 박사과 석사는 각각 12명(4.66%)과 3명(1.16%)으로 조사되었다. 즉, 지위가 분명한 257명 중 교수와 연구원이 총 205명으로 79.96%이며, 전체 281명 중 72.95%로 ⅔ 이상이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 의하여 서지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1> 저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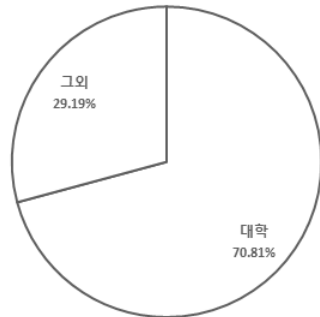
<그림 2> 전체 저자 비율

한편, 기관소속 저자들은 성암고서박물관 관장,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도서실장, 안성참빛아카이브 대표, 고전국역연구소 소장, 도서관연구소 소장, 한국고전번역원 원전정리실장 등과 같이 도서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연구자들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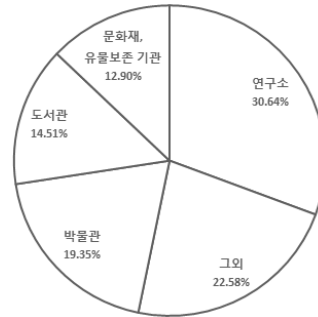
4.1.2 소속기관

총 281명의 저자 중 지위가 조사되지 않은 24명을 제외한 257명의 저자의 소속기관은 이상의 지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수와 강사 및 석사와 박사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총 182명으로 70.81%(전체 대비 64.76%)이다. 그 외 연구원(또는 연구위원 등)의 경우 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총 62명의 연구원의 소속기관 중 26명의 기관이 대학의 부설 연구소 등이다. 따라서 257명의 저자의 소속기관 중 대학 또는 대학 부속기관인 저자는 206명으로 80.15%이며, 이는 전체 281명 중 73.30%로 ⅔ 이상의 저자가 대학에 소속되어 있거나 대학의 부설 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1명의 총 20명을 포함하였다.



<그림 3> 저자의 소속기관



<그림 4> 연구원의 소속기관

전체 281명의 저자 중 총 62명이 조사된 연구원은 가장 다양한 소속기관이 조사되었으며, 상술의 대학 부속기관인 연구소를 포함하여 크게 연구소와 도서관 및 박물관 그리고 문화재 및 유물보존 기관과 기타로 조사되었다. 그중 대표적으로 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19명(30.64%)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한편, 규장각과 장서각을 포함하여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을 조사한 결과 9명(16.12%)의 연구원의 소속기관은 도서관이고, 12명(19.35%)의 연구원의 소속기관은 박물관이었다. 이는 전체 지위가 연구원으로 조사된 저자 62명 중 21명으로 33.87%이며, 연구원의 1/3 이상이 도서관 또는 박물관 소속임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대학부속 기관이나 연구소 또는 도서관 및 박물관 이외의 연구원의 소속기관으로 특기할 기관은 8명(12.90%)의 경우 문화재나 유물 관련 보존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다(<그림 4> 참조). 구체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인천도시공사 문화재 담당, 한영문화재-임학, (주)혜성문화재보존, 국립문화재보존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나목문화재보존(주), 충북대학교 지물유물보존센터, 일본 궁내성 정창원사무소 등과 같이 문화재 또는 유물 보존 관련 기관이 조사되었다.

한편, 지위상 이상의 기관 소속 저자로 조사된 경우 연구원과 유사한 소속기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암고서박물관, 안성참빛아카이브,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대구 MBC보도국 영상취재팀, 대한성서공회, 고전국역연구소, 도서관연구소, 한국고전번역원 원전정리실, (사)인산학연구원, 문화재청이 조사되었다. 그 외 해외의 소속기관으로 일본 나라현 동대사(東大寺)에 있는 8세기 이래의 왕실의 유물 창고인 궁내청 정창원의 사무소도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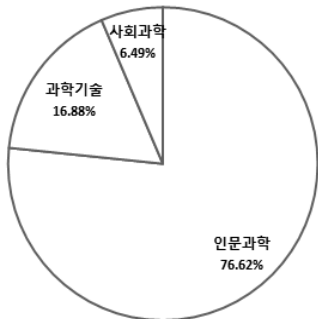
4.1.3 전공

총 281명의 저자 중 논문의 저자사항 기술부분에 전공이 표기되지 않거나 전공이 정확하지 않아 조사되지 않은 50명을 제외한 231명의 저자의 전공 사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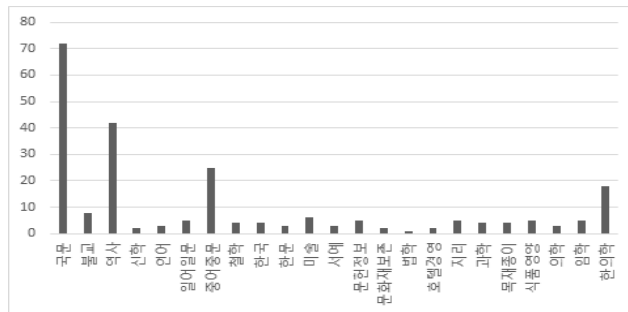
<표 3> 저자의 전공

인문 과학 · 예술	전공	국문	불교	역사	신학	언어	일어일문	중어중문	철학	한국	한문	미술	서예	총
	저자(명)	72	8	42	2	3	5	25	4	4	3	6	3	177
	비율(%)	40.67	4.51	23.72	1.12	1.68	2.80	14.12	2.24	2.24	1.68	3.37	1.68	
전체대비비율(%)		31.16	3.46	18.18	0.86	1.29	2.16	10.82	1.73	1.73	1.29	2.59	1.29	76.62
사회 과학	전공	문헌정보	문화재보존	법학	호텔경영	지리								15
	저자(명)	5	2	1	2	5								
전체대비비율(%)		2.16	0.86	0.43	0.86	2.16								6.49
과학 기술	전공	과학	목재종이	식품영양	의학	입학	한의학							39
	저자(명)	4	4	5	3	5	18							
전체대비비율(%)		1.73	1.73	2.16	1.29	2.16	7.79							16.45
비고	• 국문: 국어교육 4명과 한국어 1명 포함 • 미술: 미술사학 3명 포함 • 지리: 지리교육 1명 포함 • 한국학: 조선문화학 1명 포함 • 호텔경영: 호외식조리학 1명 포함													

이상의 표와 같이 우선 학문영역별로 구별하여 살펴보면 인문과학 분야 저자가 177명으로 76.62%(전체 281명 대비 62.9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저자가 39명으로 16.88%(전체 대비 13.87%)이다. 사회과학 분야 저자가 가장 적어 15명으로 6.49%(전체 대비 5.35%)이다 (<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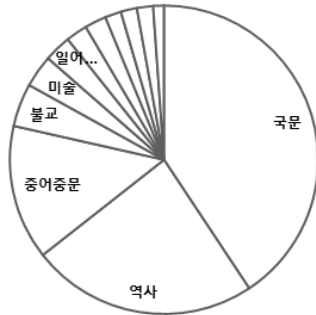
<그림 5> 학문영역별 저자



<그림 6> 전공별 저자

인문과학 분야 중 국문학 전공의 저자가 72명으로 40.67%로 가장 많으며(<그림 7> 참조), 사회과학 분야 중 문헌정보학과 지리학 전공의 저자가 각 5명으로 각 33.33%이다(<그림 8> 참조).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중 한의학 전공의 저자가 18명으로 46.15%이다(<그림 9> 참조).

전체적으로 국문학 전공의 저자가 74명으로 전체 281명 대비 31.1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역사학 전공 저자가 42명으로 전체 대비 18.18%, 중어중문학 전공 저자가 25명으로 전체 대비 10.82%, 그리고 한의학 전공의 저자가 18명으로 전체 대비 7.79%의 순이다(<그림 10> 참조). 그 외에 불교, 미술, 일어일문, 문헌정보, 지리, 식품영양학 등의 순으로 전공 저자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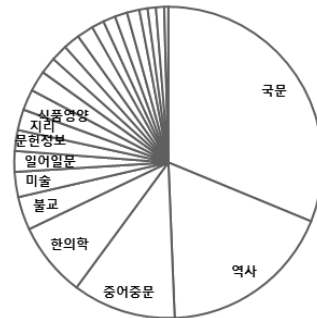
<그림 7> 인문과학 분야 저자



<그림 8> 사회과학 분야 저자



<그림 9> 과학기술 분야 저자



<그림 10> 전공별 저자

4.2 논문수

논문수의 경우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평균 논문수, 논문수와 전공 비율, 단독 및 공저, 전체 저술 논문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2.1 평균 논문수

논문의 단독과 공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한 결과 총 856편이 조사되었으며, 전체 저자 281명의 평균 논문수는 3.28편이다. 반면 공저를 2인 공저의 경우 각 0.5편, 3인 공저의 경우 각 0.33편, 4인 공저의 경우 각 0.25편, 5인 공저의 경우 각 0.2편으로 계산한 결과 총 758.36편으로 281명의 평균 논문수는 2.69편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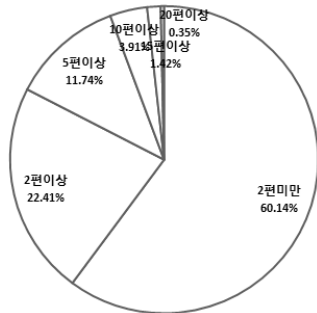
4.2.2 논문수와 전공 비율

공저의 논문을 포함하여 2편이상을 기준으로 5편 단위로 구분하여 조사한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논문수와 전공 비율을 정리한 결과는 <표 4>,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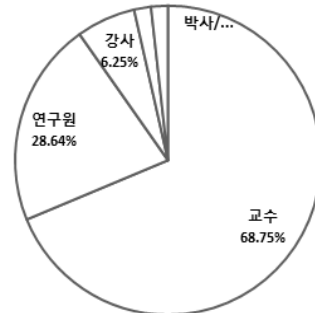
<표 4> 2편 이상 논문사항

구분	전공(명)	지위(명)	총	비고
2편 이상 (2-4편)	국어국문(21) 역사학(15) 중어중문(4), 불교(4) 의학(2), 불명(2), 일본문학(2) 한의학(2), 한문(2), 미술(2) 목재·종이과학(1), 서예(1) 지리(1), 언어학(1) 식품영향학(1), 문화재보존(1) 한국학(1)	교수(37) 연구원(17) 강사(6) 박사(2) 기관(1)	- 총저자: 63명 56.25% 전체대비 22.41%	1) 논문수 - 2편 이상: 총112 전체대비 39.85% - 2편 미만: 총169 전체대비 60.14% 2) 전공 - 국어국문(40) 35.71% - 역사학(29) 25.89% - 중어중문(11) 9.82% - 불교(4) 3.57% - 의학(2) 1.78% - 불명(2) - 일본문학(3) 2.67% - 한의학(4) - 한문(2) - 미술(5) 4.46% - 목재·종이과학(2) - 서예(2) - 지리(1) 0.89% - 언어학(2) - 식품영향학(1) - 문화재보존(1) - 한국학(1)
5편 이상 (5-9편)	국어국문(15) 역사학(9) 중어중문(3) 미술사학(2) 한의학(2) 한국학(1) 목재중어학(1)	교수(26) 연구원(5) 기관(1) 강사(1)	- 총저자: 33명 29.46% 전체대비 11.74%	
10편 이상 (10-14편)	중어중문(3) 역사학(3) 국어국문(1), 언어학(1), 서예(1), 일어일문(1) 국어국문(1)	교수(9) 연구원(2)	- 총저자: 11명 9.82% 전체대비 3.91%	
15편 이상 (15-19편)	국어국문(2) 미술(1), 중어중문(1)	교수(4)	- 총저자: 4명 3.57% 전체대비 1.42%	
20편 이상	국어국문(1)	교수(1)	- 총저자: 1명 0.89% 전체대비 0.35%	3) 신분 - 교수: 77명 68.75% - 연구원: 24명 28.64% - 강사: 7명 6.25% - 박사: 2명 1.78% - 기관: 2명 1.78%

이상과 같이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 281명 중 169명(전체 대비 60.14%)이 2편 미만의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112명(전체 대비 39.85%)의 저자가 2편 이상의 논문을 저술하였다(<그림 11> 참조). 국어국문과 역사 전공 연구자의 논문수가 가장 많았으며, 교수와 연구자의 논문수가 가장 많아 저자의 배경 중 전공분야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12> 참조). 그중 최다논문수의 경우 26편(0.35%)이 조사되었으며, 국어국문학 전공의 교수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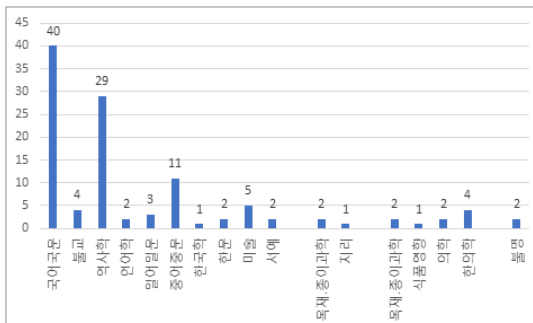
<그림 11> 논문수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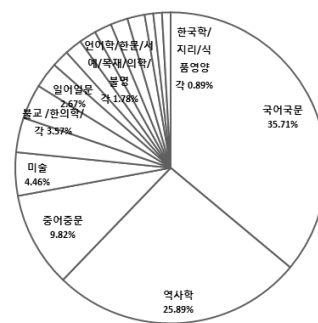
<그림 12> 2편 이상 저술 저자의 지위

4.2.3 단독 및 공저

281명의 저자 중 172명(61.56%)은 단독논문 만을 저술하고 있으며, 61명(21.70%)의 저자는 공저의 논문만을 저술하였다. 한편 47명(16.72%)의 저자는 단독논문과 공동논문을 모두 저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국어국문의 저자 40명(35.71%), 역사학 전공자 29명(25.89%)이 상위의 단독 저술자로 조사되었다(<그림 13>, <그림 14> 참조).



<그림 13> 전공별 단독 저술



<그림 14> 전공별 단독저술 비율

4.2.4 전체 논문 중 서지학적 연구 논문수

281명의 저자 중 75명(26.69%)은 기본적으로 2편 이상 논문의 저자로서 DBpia에서 식별된 저자로 처리하여 해당 저자의 DB화된 논문을 하이퍼 링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들의 본인 논문 중 서지학적 논문의 비율을 정리하면 [부록 1]과 같으며, 식별된 저자로서의 전체 논문수는 공동 저술의 논문도 1편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서지학적 논문수 또한 공동논문을 1편으로 처리하였다.

식별된 저자로서 조사된 저자의 전체논문 1,317편 중 서지학적 논문수는 363편으로 25.76%로

식별된 저자는 평균적으로 4편의 논문 중 1편은 서지학적 논문을 저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각 저자별 총 논문수 대 서지학적 논문 비율의 평균은 37.21%로 좀 더 높다. 식별된 저자 75명 중 총 논문수 대 서지학적 논문 비율이 100%인 저자는 8명(10.66%)으로 국어국문 전공저자가 4명(50.00%)으로 가장 높고, 중어중문과 불명이 각각 2명씩이다.

식별된 저자로서 조사된 저자의 전공은 국어국문 전공이 34명(45.33%)으로 가장 높으며, 중어중문 10명(13.33%), 역사학 9명(8.33%), 불명 6명(8.00%), 한의학 4명(5.33%)의 순이다(<그림 15> 참조).

4.3 게재 학술지

학술지는 해외의 SCIE와 A&HCI, SCOPUS 및 국내의 KCI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를 조사하였으며, 주제 분야와 학술단체 및 서지학분야와 타 전공 서지학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총 764개 학술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정리하면 총 107종으로 <표 5>와 같다.

<표 5> 게재 학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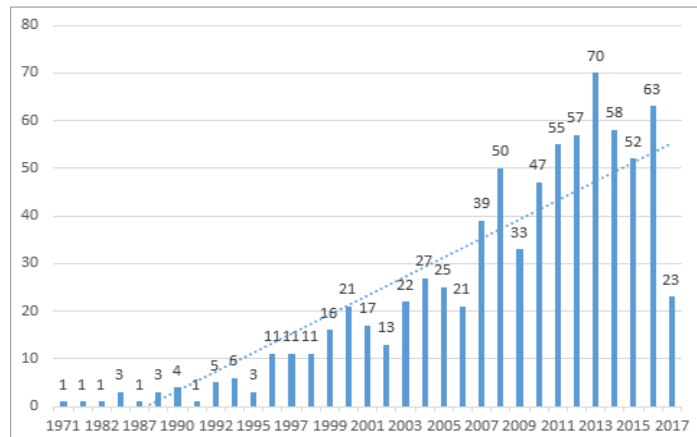
주제분야	학술지	종수
국어국문학 언어학	구결연구(57), 국어교육연구(4), 국어국문학(14), 국어국문학(4), 국어학(16), 국제어문, 국제언어문학(3), 국학연구(10), 수사학, 시조학논총, 어문론집(5), 어문연구(10), 어문학(20) , 언론과 사회, 언어과학연구, 언어학 연구, 열상고전연구, 우리말글(2), 우리문학연구(6), 판소리연구(17) , 韓國古典研究, 한국문학과 예술, 한국문학연구(2), 한민족어문학(11) , 한국어학, 한글(2)	26
문헌정보학	도서문화, 서지학연구(120) , 한국기록관리학회지(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4)	6
미술	미술사논단, 미술사학, 미술사학보,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2)	4
불교학	불교학, 불교학보(7), 선학(2)	3
식품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2),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4)	2
역사	고문화, 고구려발해연구, 동북아문화연구(2), 동북아역사논총(4), 만주연구(3), 문화역사지리, 민족문화(9), 민족문화논총(21), 법사학연구(2), 사학연구, 신라문화(2), 신라사학보(2), 역사민속학(3), 역사실학, 역사와 세계, 역사와 현실(2), 역사학보(2), 조선시대사학보(3), 지방사와 지방문화, 지역과 역사(3), 한국고대사연구(4), 한국중세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24
의사학 한의학	대한한의학회지(4),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의사학(14), 의철학연구(2)	4
일어일문	일본문화연구(3), 일본어문학(3), 일본학보	3
정치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
중어중문학	중국근현대사연구, 중국문화연구(3), 중국소설논총(8) , 중국어문논역총간(19) , 중국어문학논집(33) , 중국인문과학(7), 중국학연구, 중앙사론, 중어중문학(8)	9
지리	지명학(3), 한국지역지리학회지(2)	2
필프·종이학	필프·종이기술(24)	1
한국학	J. of Korean Cultur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군사(2), 규장각(23), 한국문화(12) , 한국민족문화(5), 한국학논집(11) , 한국학연구(4)	8
기타	다문화콘텐츠연구, Canon&Culture, 동아인문학(40), 사회과교육, 서강인문논총, 성경원문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외국문학연구, 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정신문화연구(15) , 코기토(3), 통일인문학,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

이상의 표와 같이 16개의 주제 분야 중 국어국문학과 언어학 분야의 학술지가 26종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역사학 분야가 24종으로 많이 조사되었다. 기타의 14종의 학술지 이외에 중어중문학이 9종, 문헌정보학이 6종, 미술과 의사와 한의학이 각각 4종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의사와 한의학의 학술지가 조사순위에 들어가는 것은 저자의 배경으로 전공분야 조사와 같이 인문과학분야 외에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자 조사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개개 학술지별 논문의 게재 상황을 정리하면 [부록 2]와 같다.

즉, 조사대상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논문 게재 학술지를 KCI 등재후보지 이상을 조사한 결과 KCI 등재후보지는 5종이며, 이외에는 모두 KCI 등재지이다. 한편, 해외 학술색인지 등재지로 SCOPUS 등재지는 펄프·종이기술과 의사학 2종이며, A&HCI 등재지는 의사학 1종으로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이다. 특기할 것은 이상의 107종 학술지 중 가장 많은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서지학연구」로 조사되었다.

4.4 연구년도

연구논문의 학술지에 게재된 시기를 대상으로 연구년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연구년도의 추이

이상의 그림과 같이 DBpia에 구축된 학술논문의 DB 조사 결과 197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서지학적 연구는 약간의 등락이 보이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71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간헐적으로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PC의 보급과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월드와이드웹 시대 도래에 따른 인터넷의 보급화가 이루어진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인쇄매체를 선호하며 단행본 위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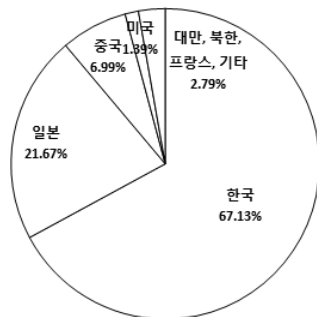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사 및 연구되고 있는 인문과학 분야 역시 전자매체와 학술지의 이용이 연구의 양적 성장에 커다란 변수임을 알 수 있다.

4.5 문헌 소장처

연구대상 문헌의 소장처는 연구논문의 연구대상 문헌의 소장처를 조사하되, 기본적으로 논문제목에 소장처를 밝히고 있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 문헌의 소장처의 구분은 크게 국내와 국외(중국, 일본, 미국, 북한, 프랑스 등)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개인, 기관, 대학 도서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찰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부록 3]과 같다,

즉,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조사 대상 문헌의 소장처는 크게 국내외로 구분되어 진다. 그중 국내의 경우 개인, 기관, 도서관, 대학도서관, 박물관과 사찰 등의 소장처가 조사되었으며, 국외의 경우 대만, 미국, 북한, 일본, 중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 소장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외의 세부적인 소장처 또한 개인, 도서관, 대학도서관, 박물관과 사찰 등이 조사되었으며, 이외에 미술관의 소장본도 연구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국가별 소장처는 한국이 96곳(67.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과 중국이 31곳과 10곳이며, 미국 외에 대만과 북한 및 프랑스를 소장처로 하는 문헌이 연구되었다(<그림 16> 참조). 또한 국내본이나 국외국내본, 일본본 등과 같이 국가명으로 소장처를 기술한 33곳을 제외하고 조사된 소장처의 경우 도서관이 3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도서관 27곳, 사찰 16곳, 박물관 5곳, 기관 11곳, 개인 10곳 등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7> 참조).



<그림 16> 국가별 소장처



<그림 17> 주요 소장처

그중 국내의 경우 계명대, 서강대, 영남대 등의 대학 도서관 소장본에 대한 연구가 총 24편(국내 중 25%, 전체 중 17.1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회도서관, 규장각, 장서각과 존경각 등의 도서관 소장본이 총 23편(국내 중 23.98%, 전체 중 16.24%)이다. 국외의 경우 일본 소장본에 대한 연구가

31편(국의 중 70.45%, 전체 중 22.14%)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소장본에 대한 연구는 10편(국의 중 22.72%, 전체 중 7.14%)이 조사되었다.

국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소장처로는 영남대학교 도서관 12편(8.57%), 규장각 11편(7.85%), 장서각 7편(5%), 계명대학교 도서관 5편(각 3.57%), 존경각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각각 4편(각 2.8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기할 것은 서지학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규장각 및 장서각과 각 대학도서관 소장본 외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있는 것에 비해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다. 또한 국내본이나 국외국내본, 일본본 등과 같이 국가명으로 소장처를 기술한 논문도 33편(23.07%)이나 된다.

5. 종합 분석

타 전공 연구자의 서지학적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저자의 배경, 논문수, 게재 학술지, 연구년도 및 문헌 소장처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배경 중 신분의 경우 전체 72.95%인 $\frac{3}{5}$ 이상이 교수와 연구원으로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 의하여 서지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자의 소속기관은 73.30%인 $\frac{3}{4}$ 이상의 저자가 대학에 소속되어 있거나 대학의 부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연구원의 $\frac{1}{2}$ 이상이 도서관 또는 박물관 소속이며, 그 외에 문화재나 유물로 보존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주로 관련 문헌을 서지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의 전공의 경우 국문학 전공이 전체 281명 대비 31.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역사학 전공이 18.18%, 중어중문학 전공이 10.82%, 그리고 한의학 전공이 7.7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문학과 역사학의 경우 주로 문헌의 원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며, 중어중문학의 경우 역시 어문 계열 또는 문학 분야의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판본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의학 분야 또한 한의학 관련 문헌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므로 서지학적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과학 분야의 저자가 가장 적은 이유는 이 연구가 문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서지학 전공자와 고문서학 전공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다른 전공의 경우 대체적으로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까닭으로 분석된다.

둘째, 논문수의 경우 전체 저자 281명의 평균 논문수는 3.28편이며, 공저를 $\frac{1}{n}$ 로 계산한 경우 평균 논문수는 2.69편으로 조사되었다.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논문수와 비율 조사 결과 281명 중 169명(60.14%)이 2편 미만의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최다논문수의 경우 26편(0.35%)으로 국어국문학 전공의 교수로 조사되었다. 2편 이상 저술한 저자 112명의 지위를 조사한 결과, 교수 77명(68.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구원 24명(28.64%)이었다. 즉, 2편 이상 저술한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는 대부분 연구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자의 신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2편이상 저술한 저자 112명의 전공을 조사한 결과 국어국문, 역사, 중어중문, 미술 등의 인문과학 분야 전공자가 다수의 연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81명의 저자 중 172명(61.56%)은 단독논문만을 저술하고 있으며, 61명(21.70%)의 저자는 공저의 논문만을 저술하였다.

타 전공 연구자의 전체 논문 중 서지학적 연구 논문수의 경우 DBpia에서 식별된 저자로서 조사된 저자의 전체논문 중 서지학적 논문수는 25.76%로 식별된 저자는 평균적으로 4편의 논문 중 1편은 서지학적 논문을 저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각 저자별 총 논문수 대 서지학적 논문 비율의 평균은 37.21%로 좀 더 높았다. 서지학적 논문 비율이 100%인 저자는 8명(10.66%)으로 국어국문 전공저자가 4명(50.00%)으로 가장 높다. 식별된 저자로서 조사된 저자의 전공은 국어국문 전공 45.33%, 중어중문 13.33%, 역사학 8.33%, 불명 8.00%, 한의학 5.33%의 순으로 인문분야와 일부 의학 분야의 저자에 의하여 서지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타 전공 연구자의 서지학적 연구 논문의 게재 학술지로는 학술지 해외의 SCIE와 A&HCI 1종, SCOPUS 2종 외에 국내의 KCI 등재지와 등재후보지가 조사되었다. 851편 중 767편의 논문이 113종의 KCI등재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KCI 등재 학술지는 107종, KCI 등재후보 학술지는 8종이며, 그 외 SCOPUS와 KCI 중복 등재지 1종과 A&HCI와 SCOPUS 및 KCI 중복 등재지도 1종 조사되었다. 해외 학술색인지 등재지로 SCOPUS 등재지는 펄프·종이기술과 의사학 2종이며, A&HCI 등재지는 의사학 1종으로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이다. 개개 학술지별 논문의 게재 상황 조사 결과 113종 학술지 중 가장 많은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서지학연구」로서 이는 「서지학연구」가 전문학술지로서 서지학적 연구의 대표 학술지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넷째, 연구논문의 학술지에 게재된 시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년 분석 결과 DBpia에 구축된 학술논문의 DB를 기반으로 197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서지학적 연구는 약간의 등락이 보이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과 더불어 1990년 중반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문헌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에 자료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분석되며, 문헌의 DB화 및 온라인 접근이 연구의 양적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된다.

다섯째, 연구대상 문헌의 소장처의 조사 결과 국내는 대학과 개인 및 사찰의 소장본 외에 일부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기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및 해외의 소장의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국가별 소장처는 한국이 96곳(67.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31곳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장처의 경우 도서관이 3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도서관 27곳, 사찰 16곳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경우 대학 도서관과 도서관 소장본이 가장 많았으며, 국외의 경우 일본 소장본에 대한 연구가 22.14%로 가장 많았고, 중국 소장본에 대한 연구는 7.14%였다. 국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소장처로는 영남대학교 도서관 18.57%, 규장각 7.85% 등이 조사되었다. 이는 서지학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규장각 및 장서각과 각 대학도서관 소장본 외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도 주요 소장처로 조사하고 있는 것에 비해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다. 이는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는 소장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보다는 국내 소장본, 일본 소장본, 국내소장의 국외본, 국외 소장의 국내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대상을 선정하거나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까닭으로 보인다. 즉,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연구대상 문헌의 소장처 조사를 통하여 국내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주요 연구대상 논문의 소장처를 살필 수 있으며, 해당 소장처에 소장되어 있는 연구대상 문헌의 존재와 가치 등에 대한 인식 외에 그 외 소장처의 발굴 또한 기대된다.

6. 결 론

최근 들어 불교학, 고소설 등의 일부 주제 분야에서 기초연구영역으로 또는 연구방법의 하나로 문헌학적 또는 서지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서지학과 고문서학 전공자 이외의 타 전공 연구자의 서지학적 연구 동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배경은 주로 교수와 연구자와 같이 연구 종사자가 대부분이며, 전공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특히 이들은 대체로 단독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일부 연구자는 공저(21.70%)로만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타 전공 연구자의 서지학적 연구의 경우 공저만으로 진행한 것은 어느 정도 통합적 연구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 방법과 연구 영역의 확대가 기대된다.

둘째, 197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타 전공 연구자의 서지학적 연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보다 더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검색이라는 연구 환경 변수가 연구의 양적 성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타 전공 연구자의 문헌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에 미치는 자료의 이용과 접근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서지학 연구자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문헌의 발굴과 도서관과 기관 등 소장처의 원문 DB화 및 도서관계와 정보학계의 고전 자료에 대한 온라인 접근과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전공으로 국어국문학, 역사학, 중어중문학에서 부터 불교학, 한의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기본적인 전공 및 연구 분야 관련 문헌에 대한 다양한 서지학적 조사와 연구를 통한 서지학 연구 영역의 확대와 문헌과 소장처의 발굴이 기대된다.

넷째, 타 전공 연구자의 전체논문 중 서지학적 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은 평균 4편 중 1편은 서지학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서지학적 연구만을 한 연구자도 10.66%였다. 이를 통하여 타 전공 연구자의 서지학적 연구는 연구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연구 분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

다섯째,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논문 게재 학술지 113종 중 「서지학연구」의 게재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서지학 분야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기초분야이면서 가장 전문적인 분야로서 뿐만이 아니라 확장성이 있는 통합형 및 융합형의 학문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에게 있어서의 서지학은 기초 학문영역이자 보조 학문영역이며, 한편 연구 방법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에게 있어서의 텍스트의 우수성 확인과 기초 조사로서의 서지학의 중요성과 서지학 연구자에게 있어서의 문헌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계량적으로 진행한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저자의 배경, 연구논문의 수치적 분석, 게재 학술지와 연구년도 및 연구대상 문헌의 소장처 등에 대한 분석 결과는 고전자료 관련 정보원 제공과 정보서비스 영역의 전문화 및 주제화를 위한 기초 조사로서의 의의가 있다. 또한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관련 분야 연구를 위한 서지학적 연구 방법의 중요성 인식 외에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서의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후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연구대상 문헌에 대한 세부주제 조사와 내용적 분석이 기대되며, 서지학 연구자와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간 그리고 타 전공 서지학 연구자의 각 전공분야간의 클러스트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순애. “韓國의 書誌學 研究 傾向: 「서지학연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14(1997). 1-21.
- 김상호. “한국의 서지학 연구동향.” 『서지학연구』 8(1992). 353-362.
-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list.nhn?cid=40942&categoryId=40942>>. [cited 2017.07.26.]
- 안성두. “독일의 불교학 연구 경향: 문헌학적 연구의 필요성.” 『오늘의 동양사상』 8(2003). 322-329.
- 유영대. “연구 방향의 모색: 고전 소설 작품 연구 방법론.” 『고전문학연구』 (1985). 85-112.
- 유춘동. “고소설 연구에서의 문헌학적 연구 성과와 방향.” 『語文論集』 63(2015). 37-56.
- 이병태. “동학의 철학적 연구를 위한 문헌학적·서지학적 고찰의 함의.” 『통일인문학』 68(2016). 223-256.
- 이상택. “문헌학적 기초 연구의 필요성과 현황 전망.” 『관악어문연구』 20(1995). 19-47.
- 이용백, 김원경, 김선풍.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http://terms.naver.com/list.nhn?cid=41708&categoryId=41711>>. [cited 2017.07.26.]
이란주, 임지혜. “한국의 서지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서지학회 발간의 [書誌學研究]에 한정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권 1호(2002). 315-336.
- 曹炯鎭. “東·西洋 書誌學의 研究領域 鳥瞰.” 『서지학연구』 11(1995), 167-188.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불교 문헌에 대한 서지적 접근』. 서울: 2017년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불교학술대회, 2017.
- 학문명백과.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410&categoryId=44410>>. [cited 2017.07.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621&categoryId=44621>>. [cited 2017.07.26.]
- 한미경. “中國의 書誌學 研究 및 敎育.” 『서지학연구』 12(1996). 271-317.
한미경. “『서지학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서지학연구』 65(2016). 119-148.
김수환. “문헌학의 가을: 문학연구 패러다임의 변화와 학문후속세대에 관한 소고(小考).” 『러시아어 문학연구논집』 39(2012). 7-23.

[부록 1] 타 전공 연구자의 전체 논문 중 서지학적 연구 논문수

	총논문수	서지학적 연구 논문수	%	전공	비고
1	9	3	27.00	국어국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1명의 저자 • 식별된 저자의 비율: 75명(26.69%) • 총논문수 대 서지학적 논문수: 1,317편 대 363편 • 총 논문수 대 서지학적 논문 비율의 평균: 37.21% • 75명 중 총논문수대 서지학적 논문 비율 100%의 저자: 8명(10.66%) • 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국문: 34명(45.33%) - 중어중문: 10명(13.33%) - 역사학: 9명(8.33%) - 불명: 6명(8.00%) - 한의학: 4명(5.33%)
2	25	8	32.00	국어국문	
3	14	14	100	국어국문	
4	28	14	50.00	사학	
5	17	2	28.57	지리	
6	3	3	100	중어중문	
7	34	8	23.52	국어국문	
8	11	2	18.18	한의학	
9	21	5	23.80	국어국문	
10	13	13	100	중어중문	
11	16	3	18.75	국어교육	
12	18	2	11.11	국어국문	
13	4	1	25.00	언어학	
14	2	2	100	국어국문	
15	8	6	66.66	중어중문	
16	27	12	44.44	사학	
17	9	1	11.11	임학	
18	18	9	50.00	중어중문	
19	13	9	69.23	국어국문	
20	12	6	50.00	중어중문	
21	25	6	24.00	국어국문	
22	34	26	76.47	국어국문	
23	24	1	4.16	지리	
24	2	2	100	-	
25	11	4	36.36	국어국문	
26	11	1	9.09	과학	
27	153	11	7.18	한의학	
28	2	1	50.00	사학	
29	16	1	6.25	-	
30	11	8	72.72	한의학	
31	3	2	66.66	일본문학	
32	22	4	18.18	임산공학	
33	16	1	6.25	국어국문	
34	8	3	3.75	중어중문	
35	6	1	16.66	과학	
36	17	5	29.41	일어일문	
37	5	5	100	국어국문	
38	15	1	6.66	국어국문	

	총논문수	서지학적 연구 논문수	%	전공	비고
39	7	2	28.57	국어국문	
40	18	4	22.22	국어국문	
41	9	6	66.66	한문	
42	9	1	11.11	국어교육	
43	24	7	29.16	사학	
44	22	3	13.63	국어국문	
45	10	1	10.00	국어국문	
46	21	8	38.09	국어교육	
47	2	2	100	-	
48	6	3	50.00	중어중문	
49	21	7	33.33	국어국문	
50	23	2	8.69	사학	
51	2	2	100	중어중문	
52	2	1	50.00	국어국문, 고전소설	
53	28	18	64.28	국문	
54	5	3	60.00	-	
55	6	2	33.33	국문	
56	18	4	22.22	미술사학	
57	13	1	3.22	-	
58	5	1	20.00	중어중문	
59	3	3	100	국어국문	
60	23	8	34.78	국어국문	
61	23	1	4.34	법학	
62	23	10	43.47	중어중문	
63	20	16	8.00	국어국문	
64	6	1	16.66	-	
65	80	8	10.00	목재·종이과학	
66	2	1	50.00	사학	
67	24	1	4.16	국어국문	
68	23	11	47.82	사학	
69	20	1	5.00	국어국문	
70	33	2	6.60	국어국문	
71	35	1	2.85	사학	
72	31	4	12.90	국어국문	
73	15	2	13.33	사학	
74	20	8	33.33	국어국문	
75	2	1	50.00	국어, 한국어학	
총	1,317	363	37.21	14개 전공, 1개 불명	

[부록 2] 게재 학술지의 등재구분

번호	편수	종수	등재구분*	학술지명**
1	120	1	KCI등재	서지학연구
2	57	1	KCI등재	구결연구
3	40	1	KCI등재	동아인문학
4	34	1	KCI등재후보	장서각
5	33	1	KCI등재	중국어문학논집
6	24	1	KCI등재 SCOPUS등재	필프·중이기술
7	23	1	KCI등재	규장각
8	21	1	KCI등재	민족문화논총
9	20	1	KCI등재	어문학
10	19	1	KCI등재	중국어문논역총간
11	17	1	KCI등재	판소리연구
12	16	1	KCI등재	국어학
13	15	2	KCI등재후보 KCI등재	목간과문자 , 신문화연구
14	14	2	KCI등재(2) A&HCI등재 SCOPUS등재	국어국문학, 의사학
15	13	1	KCI등재	일본어문학
16	12	1	KCI등재	한국문화
17	11	2	KCI등재(2)	한국학논집, 한민족어문학
18	10	2	KCI등재(2)	국학연구, 어문연구
19	9	1	KCI등재	민족문화
20	8	2	KCI등재(2)	중국소설논총, 중어중문학
21	7	2	KCI등재(2)	불교학보, 중국인문과학
22	6	1	KCI등재	우리문학연구
23	5	2	KCI등재(2)	어문론집, 한국민족문화
24	4	9	KCI등재(9)	국어교육연구, 국어국문학, 대한한의학회지, 동북아역사논총,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식품조리과학회지, 한국어학, 한국학연구
25	3	9	KCI등재(9)	국제언어문학, 만주연구, 역사민속학, 일본문화연구, 조선시대사학보, 중국문화연구, 지명학, 지역과 역사, 코기터
26	2	17	KCI등재(17)	고문화, 군사, 동북아문화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법사학연구, 선학, 신라문화, 신라사학보, 역사와 현실, 역사학보, 우리말글, 의철학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학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글
27	1	48	KCI 등재(45) KCI 등재후보(3)	Canon&Culture, J. of Korean Cultur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고구려발해연구, 교회사연구, 국제어문, 다문화콘텐츠연구, 도서문화, 돈암어문학,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문화역사지리, 문화와융합 , 미술사논단, 미술사학, 미술사학보, 불교학, 사학연구, 사회과교육, 서강인문논총, 성경원문연구, 수사학, 시조학논총, 아시아여성연구, 언론과 사회, 언어과학연구, 언어학 연구, 여성과역사 , 역사실학, 역사와 세계, 열상고전연구, 외국문학연구, 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일본학보, 중국근현대사연구, 중국학연구, 중앙사론, 지방사와 지방문화, 통일인문학, 韓國古典研究,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한국주거학회논문지, 한국중세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한자연구

* 등재구분: 학술색인지별로 등재 구분. 괄호안의 숫자는 종수이며, 1종의 경우 표기 생략

** ① 진한색: KCI 등재후보지, ② 밑줄: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③ 이중 글자: SCOPUS 또는 A&HCI 등재지

[부록 3] 연구대상 문헌의 소장처

	중구분	세구분	합	비고	
국내	국내본	국내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숫자: 소장처 수 소장처의 순서: 이름순 소장처가 1곳인 경우 기술 생략 	
	개인	개인, 김연수 창본, 은진 송씨 송준길 후손가, 한창기 선생 수집본, 해남 녹우당, 宋奎濂家 전적, 羅孫本 필사본	7		
	기관	한국국학진흥원1, 한국학중앙연구원2	3		
	도서관	국회도서관1, 규장각11, 장서각7, 존경각4	23		
	대학 도서관	경남대, 경북대, 계명대: 계명대2+행소박물관+동산도서관2, 대구카톨릭대, 서강대4, 서울대2, 연세대, 영남대: 돈마문고+영남대7+남재문고+도남문고2+동빈문고, 충남대2	24		
	박물관	가천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4, 국립한글박물관, 성암고서박물관, 호림박물관	8		
	사찰	남선사, 범어사, 상원사2, 서봉사, 송암사, 송광사, 수선사, 포천 모사, 해남 대흥사, 해료왕사, 흥덕사	11		
	국내국외본	국내중국본2, 일본관 중국소설, 중국소설7	10		
	국외국내본	한국본4	4		
	출토처	경주남산, 태안, 태안 마도, 화엄사 석탑	4		
국외	대만	박물관 고궁박물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소장처: 96곳(68.57%) 국외 소장처: 44곳(31.42%) 	
	미국	도서관	하버드엔칭도서관		1
		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1
	북한	사찰	귀진사		1
	일본	개인	佐藤3		3
		기관	동양문고5, 정창원3		8
		대학 도서관	교토대학, (도쿄대 문학부) 소장문고, 고마자와(駒澤) 대학 다쿠소쿠(濯足) 문고		3
		도서관	大阪府立圖書館, 소케문고(宗家文庫), 외교사료관		3
		미술관	덕천미술관		1
		사찰	동대사3, 태산사		4
		일본국외본	일본+한적, 일본+한국고문헌		2
		일본본	일본7		7
	중국	중국본	중국		1
		도서관	국가도서관 선본특장실-한국학, 상해도서관		2
		박물관	상해박물관5		5
		지방	티베트		1
		판본	중국한국-한국중국		1
	프랑스	도서관	국립도서관		1
	국외본	국외			1
	총				143

* 일부 다수의 소장처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각 소장처별로 구분
 ** 규장각, 장서각, 존경각의 경우 대학도서관이 아닌 독립적인 도서관으로 조사